

성대구증 환자에서 KTP Laser와 Pulsed Dye Laser 치료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지형, 황혜진, 임재열, 최홍식

목적

본원에서는 성대구증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585-nm Pulsed Dye laser (PDL)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였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PDL의 생산 중단으로 대체 치료법이 절실한 상태이다. 최근 새롭게 적용하는 532 m KTP (potassium-titanyl-phosphate) laser가 성대구증에 대하여 PDL과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여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

2016년에 본원 내원하여 다른 후두질환 없이 성대구증 단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 PDL 또는 KTP laser를 적용하여 치료한 환자 2명의 수술 전, 후 임상적 소견과 음성분석검사를 비교하였다.

결과

2016년에 성대구증에 대하여 각 Laser 단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2명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다. 두 환자 모두 선 목소리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PDL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까지 외래 경과 관찰하여 임상적 소견 및 주호소 증상의 호전을 확인하였다. 음성분석검사를 통하여 음성 및 공기역학적인 부분의 주관적, 객관적 변화를 확인하였고, GRBAS score의 개선 및 VHI score 또한 23점에서 0점으로 개선되었다. KTP laser를 이용한 환자의 경우 수술 전과 수술 후 3개월까지 외래 경과 관찰한 상태로 마찬가지로 임상적 소견 및 음성분석검사의 호전을 보였으며 VHI score에서도 25점에서 10점으로 개선을 확인하였다.

결론

성대구증에 대하여 레이저후두수술, 주사후두성형술 등의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며 본원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KTP laser 이용한 치료 또한 성대구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술 후에 객관적, 주관적으로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좋은 치료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성대구증, KTP, PDL, 후두미세수술